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출장보고서

2010년 11월10일

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포럼”(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HLF-4)\*에서 제시할 “개발원조 효과성”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NEPAD\*\*와 공동으로 제2차 원조 효과성 아프리카지역회의\*\*\*를 11월4일-5일 동안 튀니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음.

\*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포럼**은 OECD-DAC주관으로,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와 원조 선진국 및 수원국들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하여 개발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개발 및 설정, 파리선언의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2011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4차 고위포럼 개최 예정.

\*\*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 NEPAD)은 아프리카연맹(Africa Union)산하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프리카 고위지도자들에 의한 운영

\*\*\* **제2차 원조효과성 아프리카 지역회의**는 AfDB가 아프리카 역내외 지도급인사 160여명을 초청하여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

- AfDB와 NEPAD는 KDI 원장을 상기회의 기조연사 및 패널리스트로 초청\*하면서, 11월 G20의 개발의제를 공유하고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 및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입장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

\* AfDB와 NEPAD가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를 부담

- 출장의 목적은 ① 다음 달 개최되는 G20의 개발의제를 아프리카 지도급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고, ②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③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AfDB 고위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

\*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협력모델의 하나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경제협력 전략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22개국에 200여개 과제의 자료 종료 또는 진행 중임.

## 2. 출장 개요

- 출 장 자 : 현오석(원장), 이태희(CID 정책자문실장)
- 기 간 : 2010년 11월2일(화)~8일(월)
- 출 장 지 : 튀니지아 튀니스 쉴라톤호텔
- 내 용 : ① 원조효과성 아프리카회의 발표 및 토론  
② KSP사업 추진 관련 참가국과의 협력방안 논의  
③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 논의
- 면담인사 : ① Dr. Donald Kaberuka, AfDB 총재  
(르완다 前재무장관)  
② Dr. Ibrahim Assane Mayaki, NEPAD의장  
(나이지리아 前국무총리)  
③ Dr. Talaat Abdel-Malck, OECD-DAC  
실무분과 공동위원장  
④ Mr. Aloysius Ordu, AfDB 부총재  
⑤ 송봉헌 주튀니지 한국대사 등 다수

## 3. 출장 일정(잠정)

**11월2일(화)** : - 인천 출발 (23:55, EK323)

**11월3일(수)** : - 튀니스 도착 (12:55, EK747)

- Plenary Session Pre-meeting  
(AfDB, NAPAD와의 발표내용 조율 등)

**11월4일(목)** : - 개회식 및 회의 참석 (별첨 회의일정 참조)

- Montador AfDB 이사 면담(AfDB 본부)
- Soumana Soko(전 말리총리) 면담
- Dalmas Otieno Anyango(케냐 총리실 행정장관) 면담
- 송봉헌대사 주최 만찬

**11월5일(금)** : - Roundtable No. 6: The Changing Landscape of Development Cooperation: Africa and BRICs (Penalist 참여 : 현오석 원장)

- Plenary Session : The Road From Accra To Busan (기조연설 및 토론 : 현오석 원장)
- Talaat Abdel-Malek, (OECD-DAC Working Party 위원장), Joy Lomoy (OECD 개발협력국장) 면담
- Olivier Kamitatu Etsu(DR콩고 기획부 장관) 면담
- Mr. Aloysius Ordu, AfDB 부총재 만찬

**11월6일(토)** : - Ibrahim Assane Mayaki NEPAD 사무총장  
- 현지진출인사 튀니지현황 간담회(만찬)

**11월7일(일)** : 튀니스 출발(14:30, EK 748)

**11월8일(월)** : 인천 도착(16:30, EK 322)

#### 4. 주요인사 면담 내용

##### □ Soumana Soko(전 말리총리) 면담

(‘10.11.4 10:50~11:10, Sheraton Hotel)

- KSP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농업분야의 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면서 KDI와 같은 Think Tank가 말리에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청시 지원 요망

##### □ Dalmas Otieno Anyango(케냐 총리실 행정서비스장관) 면담

(‘10.11.4 12:30~13:00, Sheraton Hotel)

- 한국발전경험 중, 특히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IT기술과 융합된 행정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경험의 공유를 희망하고, KSP사업에 참여를 희망

##### □ Montador AfDB 한국, 중국, 쿠웨이트, 캐나다 담당이사 면담

(‘10.11.4 14:00~15:00, 아프리카개발은행 본부 이사실)

- KSP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히 경험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상이하기 신중한 적용이 필요함. 한국의 지속적 협력에 감사를 표시

##### □ Olivier Kamitatu Etsu(DR콩고 기획부 장관) 면담

(‘10.11.5 12:30~13:00, Sheraton Hotel)

- 한국의 개발경험공유사업(KSP)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경제개발기획제도(경제기획원과 같은 기관)의 설치 및 운용 경험이 우간다의 경제사회개발에 중요함. 현재 KSP사업 하에서 경제기획에 대한 자문 사업을 추진 중임을 언급.

##### □ Roundtable 6: The Changing Landscape of Development Cooperation: Africa and BRICs

(현오석 원장, ‘10.11.5 10:00~12:30, Sheraton Hotel)

- BRICs국가들의 공여국으로 등장, 아프리카지역에 베이징 컨센서스 형성 여부, 아시아국가의 개발경험 중요성과 영향력 증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에 논의

##### □ Plenary Session 5 : The Road From Accra To Busan

(현오석 원장, ‘10.11.5 16:00~17:10, Sheraton Hotel)

-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MDGs와 관계 및 아시아개발경험의 의미를 논하고,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4)과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의미, G-20 개발의제와의 관계, 원조효과성 제2차 아프리카역내포럼의 역할에 대해 발표

##### □ Talaat Abdel-Malek, (OECD-DAC Working Party 위원장), Joy Lomoy (OECD 개발협력국장, Sheraton Hotel) 면담

(‘10.11.5 17:10~17:20, Sheraton Hotel)

- G-20와 관련 개발의제 개발, 아프리카 지역회의 참석 등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2011년 부산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NLF-4)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Aloysius Ordu, AfDB 부총재 만찬

(10.11.5 20:00~22:30, Sheraton Hotel)

- 원조효과성에 대한 아프리카역내회의에 KDI의 참여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개발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범사례이고, 특히 KDI와 아프리카개발은행간의 공동 협력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동석한 Cape Verde(세네갈 서쪽의 섬나라)의 재무장관 Cristina Durate는 한국경제발전 중에서 KDI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제시하면서, 자국에 정책연구소 설립시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을 희망

□ Ibrahim Assane Mayaki(NEPAD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前 국무총리) 면담 (10.11.6 07:30~08:00, Sheraton Hotel)

- KDI의 참여에 감사를 표시하고 G-20 개발의제를 공유하여 내년 부산에서 개최될 HLF-4를 준비를 위한 아프리카 의제 개발에 도움이 됨.
- KSP사업의 설명에 대해서, 아프리카 잠재력의 자극에는 한국경험이 중요하고 특히 한국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임.

5. 시사점

- 아프리카는 1950년대 이후, 개발원조의 최대 수원지역임에도 원조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최고위 지도자들에게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개발원조정책과 개발경험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되었음.

- 특히 160여명의 아프리카 고위 지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이번 역내회의에서 KSP사업을 소개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G20 개최국가로서 G20 개발의제를 Non-G20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ODA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선후진국간의 브리지역할을 강화
- 아프리카지도자들과 한국개발경험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될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NLF-4)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프리카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의제개발에도 기여할 것임.
- 대륙별, 지역별로 개최되고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포럼은 KSP 사업의 소개는 물론이고 수원국의 사업수요와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로서, 향후 유사 국제회의에 KSP 사업 담당자를 파견하여 적극 활용이 요망
  - \* 회의의 관심 논의사항을 보면, ① 원조효과성 자체 보다는 개발효과성, ② 개도국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남남협력(1980년대) 증진, ③ 新舊공여국의 new역할분담, ④ 일부이긴 하지만, 서구시각중심 개발원조에 대한 무용론, ⑤ 개발협력(원조)보다는 경제협력을 희망 등임.
-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KSP사업을 통한 긴밀한 협력방안 및 인적관계 구축을 통해 거대한 잠재력(천연자원, 미래시장)을 가진 아프리카와의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